



## 忠南地域 百濟遺蹟의 研究現況과 課題

이 남 석  
(李南奭)

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 I. 서 언
- II. 조사활동의 개관
- III. 연구현황
- IV. 문제와 과제
- V. 결 언

### I. 序 言

다 아는 바와 같이 百濟는 京畿, 忠淸, 全羅 등의 地域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遺蹟 역시 이들 지역에 골고루 남아 있다. 따라서 백제 관련 고고학사적 검토는 이들 백제의 옛 지역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주제의 선정에 따라 空間적으로 충남이란 지역범위를 설정하고, 다시 百濟時代라는 時間軸 속에서 형성된 遺蹟의 研究現況과 課題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본래 충남지역의 고고학 현황은 매우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석기시대는 물론 靑銅 器時代 유적의 다양성은 널리 알려진 바이고, 이후 原三國期 歷史時代에도 충남지역이 이들 시기의 力動的 歷史의 한가운데 위치하였던 관계로, 당시에 남겨진 물적 자료가 비교적 풍부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원삼국기는 馬韓의 중심지역으로, 百濟時代에는 비록 後代지만 都邑地가 자리하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유적이 적지 않게 散布되어 있다. 이들 각 시기의 유적은 기록이 매우 엉성한 현실에 비추어 당대 歷史의 究明에 중심적 역할을 차지한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百濟史와 관련, 忠南地域의 입지적 현황은 늦어도 近肖古王代인 4세기 중엽에 이르면 백제 의 영역에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나아가 475년 백제의 熊津 遷都는 충남지역이 백제사의

전면에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백제유적이 도처에 남아 있는 충남지역은 백제사를 그대로 온존한 지역으로 볼 수 있으면서, 이들 유적의 活用 如何 에 따라 백제사 정립에 새로운 방향이 제시된다고 볼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유적은 체계적 調査와 整理, 그리고 分析을 거쳐야만 올바른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는 文獻史學에서 역사 복원에 앞서 사료의 발굴 및 사료 비판을 거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적을 史的 資料化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유적의 자료적 有用性에도 불구하고 발굴 조사와 같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는 과정과 절차가 있어 기초자료의 획득에도 상당한 장애를 수반하게 된다. 다행히 최근의 고고학 활동은 그것이 순수 학술목적이 아닌 구제조사, 혹은 문화재 정비를 위한 계획조사 일지라도 數量 면에서 두드러진 증가세가 나타나 이 분야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 현상으로 볼 수 있겠다. 특히 충남지역의 백제유적에 대해서는 최근 文化遺産의 계승·발전이란 측면에서 역사유적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백제문화권 개발이란 목표하에 유적의 조사·개발이 가속화 되는 현실은 비록 학술적으로 부정적 측면이 없지 않지만 고고학적 자료의 발굴이란 점에서 매우 긍정적 역할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고고학적 활동은 일제시대부터 이미 비롯되고 있지만, 편견과 왜곡이 적지 않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것이고, 해방 이후 우리의

손으로 고고학 활동이 전개됨으로써 비로소 올바른 고고학 정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고학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본격적인 조사 활동은 대체로 1970년대 이후에 가속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학문적 토양의 성장과 함께 유적 발굴 환경의 개선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각지에서 유적조사가 가시화 되어, 이제 고고학적 학문활동도 본격적 궤도에 올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충남지역에서의 백제 고고학은 1971년에 武寧王陵이 발견된 이후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는데, 이후 백제문화권 개발의 추진에 따라 보다 다양하고 폭넓게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백제사의 중심권역으로 볼 수 있는 지역에 대한 학술조사나 문화유적 정비사업이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忠南地域이란 공간에 백제라는 시간에 국한된 유적의 조사·연구현황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내용은 먼저 유적조사 활동을 시기별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조사된 유적의 연구현황과 그 문제점을 지적하여 보고자 한다. 다만 연구현황과 문제점은 가능한 범위를 좁혀 論爭의 問題, 즉 考古學史的 문제가 아닌 유적 자체의 研究概況만이 검토하면서 그와 관련된 문제점을 추출하여 이를 토대로 추후 과제를 제시하는 정도에 국한하고자 한다.

## II. 調査活動의 概觀

유적의 조사활동은 조사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검토될 수 있지만, 현장조사와 관련, 최종 단계

인 발굴조사를 기준으로 하겠다. 아울러, 활동 시기의 구분은 日帝時代, 解放後에서 武寧 王陵의 發見, 그리고 武寧王陵 發見 以後의 3시기로 구분한다.

일제시대 활동의 경우 유적조사가 순수하게 학술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는가 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지 않지만,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상당수가 이 시기에 조사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방후 무령왕릉의 발견까지는 비록 제한 여건으로 말미암아 조사활동이 상당히 위축되었지만, 나름의 학문적 방법의 축적속에 이전에 일제에 의해 歪曲된 歷史像을 바로잡는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어 주목되는 시기이다.

한편 무령왕릉 이후의 시기는 백제 고고학은 물론 백제사에 대한 새로운 연구 분위기가 진작되었고, 뒤이어 백제문화권 개발이라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유적조사가 비약적으로 증대된 시기로 볼 수 있다.

일제시대 조사유적은 고분군과 사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고분은 1913년 능산리 고분군의 관찰에서, 이어 1916년과 35년·37년의 발굴로 능산리 고분군의 실상이 알려진다. 1916년의 조사는 중하층, 중상층을 비롯한 6기의 고분이 조사되면서 백제 황혈식 석실분의 전형적 형상의 파악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동하층과 같은 벽화고분의 존재가 조사됨으로서 이 고분군이 백제의 부여 도읍 시기 왕릉군으로 손색이 없음을 입증하게 된다. 이어 35년에 이들 6기의 주변 조사와 더불어 37년에는 동고분군으로 분류된 5기의 고분이 조사되고

있다. 한편 1927년에는 공주 송산리 고분군의 조사는 백제왕릉의 발견을 위하여 인근의 무릉동과 능치의 조사와 병행하여 실시되었고, 그 결과 송산리 고분군내의 1-5호분이 발굴·조사되었다. 이 조사로 송산리 고분군이 백제왕릉으로 인정되면서 이어 1932~33년에 6호 전축분 등이 확인되어 이 지역에서도 백제고분의 내용과 왕릉군의 실상이 보다 구체화 되기에 이르렀다.

사지는 1936년에서 43년까지 진행되었는데, 36년 부여 군수리 사지의 조사로 유명한 남석제 불좌상의 수습이 이루어지고, 百濟 伽藍의 기본적인 형상 파악이 이루어진다. 이어 규암리 사지가 같은 해에 조사되고, 38년에는 가탑리 사지, 동남리 사지가 발굴되면서 동남리 사지는 탑지가 목탑지의 형상으로 확인되는 등의 백제 가람의 이해 폭이 넓어진다. 한편 1942년에는 부소산성의 서편 기슭에 위치한 서복사지가, 43년에는 정림사지가 발굴·조사되나 이 중에 정림사지는 보고서가 미간인 형태로 남아 있었다.

일제시기 조사내용을 종합하면, 부여지역에 집중되면서 古墳과 寺址만 중점적으로 조사되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조사지역의 편중은 王都와 같은 특정 지역에 유적이 밀집되었다는 원인도 있겠지만, 조사목적이 고분의 유물자료에 보다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나아가 부여지역의 寺址에 대한 집중적 조사는 일본의 고대 불교와 관련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들 외에 日人 가루베(輕部慈恩)의 유적조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공주에 거주한 인연으로

유적에 대한 폭넓은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는데, 부정적 평가가 없지 않지만, 공주지역의 백제유적에 대한 폭넓은 현황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주목될 수 있다.

해방 이후 무령왕릉이 발견되기까지, 즉 50~60년대는 유적조사가 본격적으로 우리의 손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는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내용에서는 상당한 빈약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해방과 더불어 나타난 정치·사회적 혼란, 이어 전개된 50년대의 전쟁기의 혼란 속에 고고학 활동이 거의 중단 상태에 있었던 것은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이 시기 충남지역에서의 유적조사는 50년대는 거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으며, 다만 60년대에 이르러 간헐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간추려 보면 1962년의 부여 동남리 와요지, 1964년 금강사지와 임강사지의 조사, 1966년 공주 시목동 고분조사, 1969년의 공주 서혈사지, 그리고 서산 명지부락 고분조사 등을 들 수 있다.

결과 동남리 와요지는 백제시대 기와 생산시설의 검토를 위한 기초 자료의 마련이라는 점에서, 금강사지와 임강사지는 백제사찰을 검색하기 위한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69년에 전개된 공주 서혈사지의 조사는 공주지역의 백제사찰 조사에 목적이 있었으나 조사결과 백제와 관련된 유적은 검출되지 않았으면서 그대로 백제사찰로 인정하는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 시기의 조사는 조사량에서 절대적 부족이 확인되나 내용은 주목될 수 있는 것이 많다. 그리

고 마암리 백제토기관 조사라던가 공주·부여지역에서 간헐적으로 발견되는 고분에 대한 수습 조사도 조사내용에 추가할 수 있다.

60년대를 지나 70년대, 특히 1971년 무령왕릉 발견은 백제사나 백제 고고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마련하는 轉機를 마련한다. 무령왕릉이 지닌 정보의 폭발성이라던가 문화재적 가치로 말미암아 이전에 거의 침체를 면치 못하던 분위기를 일신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유적조사 현황을 보면 70년대는 이렇다 할 활동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백제사, 백제 고고학 관련 연구기관이 마련되고 왕릉 발견과 함께 백제 문화재에 대한 국가적 인식이 크게 부각되었음에도 유적조사의 본격적 활동은 전개되지 않는다.

반면에 충남 이외의 지역에서는 조사활동이 비교적 활발한데, 예를 들어 1974년 익산 미륵사지 東塔址의 조사, 서울 잠실 지구의 백제유적 조사, 김제의 碧骨堤 조사, 석촌동 고분군의 조사, 익산 왕궁리의 조사, 서울 구의동 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침체를 면치 못하는 충남지역의 현황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70년대에 나타난 무령왕릉의 발견과 각지에서 단속적으로 진행된 유적조사 활동은 백제 유적에 대한 인식의 증대외에 국가성장과 더불어 문화재에 대한 관심의 증대, 나아가 지속된 개발과 관련된 유적의 救濟調査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대를 가져왔고, 그에 대한 구체적 조치가 70년대 말부터 가시적으로 나타나면서, 이 후부터는 유적조사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에 이른다. 이를

백제문화권 개발사업과 병행된 유적조사, 학술목적으로 위한 계획적 발굴조사, 그리고 구제조사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과 관련된 유적조사는 정비·복원을 위한 기초자료의 마련에 일차적 목적을 두고 진행된 것이다. 78년에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틀이 잡혀가면서 공주와 부여지역 문화유적의 현황조사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추후 발굴·정비 대상의 선정이란 목적이 있었지만, 처음으로 百濟故地의 유적현황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1979년부터 공주와 부여지역에서 본격적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중요한 발굴현황을 보면 먼저 공주의 경우 80년도에 진행된 공주 공산성내 건물지 발굴조사를 들 수 있다. 이 조사에서 유명한 임류각지가 조사되었는가 하면, 영은사 앞지역의 연못이 확인되고, 조선시대의 장대지 등이 조사됨으로써 공산성내 유적에 대한 기초적 윤곽이 잡혀가게 되었다. 이어 공산성의 조사는 82년 영은사 앞지역의 연못조사를 비롯하여, 암문지 불상출토 유적 등이 조사되었고, 85년과 86년에 걸쳐 쌍수정 앞광장의 백제 추정왕궁지가 발굴되기에 이른다. 추정 왕궁지의 조사는 정설은 아니지만 웅진도읍기의 왕궁 위치에 대한 단서를 마련하는 전기로 볼 수 있다. 이어 계속된 공산성내 유적조사는 백제시대에는 물론 통일신라시대의 다양한 건물지, 그리고 조선시대의 중군영지의 조사까지 이루어져 성내 유적에 대한 대략적 파악은 이루어진 셈이다.

한편 부여지역은 1980년도의 정림사지의 발굴조사부터 시작되는데 정림사지의 발굴은 이 사지가 일제시대 발굴조사되었음에도 기록이 전하지 않는 한계를 극복하면서 백제유적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동기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이어 사비 도읍시기 왕궁지의 조사를 비롯하여, 부소산성의 성벽조사, 나성조사, 건물지 조사가 단속적으로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부소산성의 성곽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해방후의 축적된 고고학 경험속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70년대 후반부터 충남지역에서는 백제문화권 개발전략과는 별도로 일정한 목표하에 발굴을 실시하는 학술 발굴이 시작되었다. 물론 60년대 간헐적으로 계획발굴이 없었던 것이 아니지만 이전의 단발적 조사에서 벗어나 국립박물관과 대학박물관,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조직되기에 이르는데, 79년부터 실시된 표정리 고분군의 발굴과 두곡리 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를 그 시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80년대 이르면 재정적 조건의 개선에 따라 각 연구기관과 문화재단의 지원속에 유적조사가 순수 학술목적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고분조사와 성곽조사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예로 고분조사는 보령 보령리를 비롯하여 논산 표정리·육곡리, 서천 칠지리, 홍성 성호리, 공주 송학리·남산리, 공주 금학동·신기동·웅진동 고분군을 성과로 꼽을 수 있고, 직산 사산성, 홍성 신금성 조사는 성곽조사의 사례이다. 이러한 계획된 발굴조사는 종래에 알려진 유적 이외에 더욱 다양

한 유적 존재를 새삼 일깨워 주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출토되는 유물 등으로 백제 고고학을 체계화 하는데 더 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조사된 유적의 수는 많지 않지만 실제로 조사를 통해 얻어진 성과는 시간과 비용에 쫓기게 마련인 구제 발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중요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70년대 후반부터 비약적으로 증가한 국토 개발의 여파로 각지에서 구제발굴조사가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충남지역에서 구제발굴조사가 시작된 것은 대청댐 건설에 따른 수몰지구 조사이다. 이 때에 조사된 유적은 지석묘와 석곽묘이지만 이후 각종 국토개발사업에 구제발굴조사가 선행되는 이정표는 남겼다. 1979년에 이루어진 공주 웅진동 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 역시 이러한 구제발굴의 성격이었다. 당시 고분군이 자리한 지역에는 조폐공사가 들어설 예정이었는데, 대규모의 형질 변경에 앞서 실시된 발굴조사를 통해 백제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의 고분을 조사하여 80년대 이후 발굴조사가 활기를 띠게 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 최근에 이르면 이러한 구제조사는 국가의 산업개발과 관련하여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1993년 10월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해 준 金銅百濟大香爐가 발견된 陵山里 寺址(陵寺)의 조사는 이 지역에 주차장이 들어서기 전에 실시한 조사에 의해 그 존재가 확인된 것이며, 여기에서 동쪽으로 약 2km 정도 떨어진 능산리 고분군 역시 공설운동장이

들어설 예정 지역에 대한 조사결과 확인된 유적이다. 또한, 최근 공주에서 조사되어 백제 제사유적으로 학계의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艇止山 遺蹟도 역시 백제 큰길 건설과정에서 구제조사된 사례이고, 청동기시대에서 백제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형의 고분이 한꺼번에 발견된 공주의 분강·저석리 고분군 역시 바로 이 백제 큰길 건설에 앞서 실시된 구제조사의 결과이다.

대전 월평동 백제산성 유적은 정수장이 들어서기에 앞서 실시한 조사에서 그 존재가 확인된 것이며, 주거유적과 분묘유적이 함께 조사되어 당시 사람들의 住居生活와 死後世界에 대한 인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던 서천 오석리 유적은 서해안 고속도로 통과 노선상에 자리하고 있어 조사된 것이다. 이 밖에 백제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의 와요지가 발굴·조사된 보령 천방 유적은 바로 보령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유적이다.

### III. 研究現況

유적 발굴은 문화재 개발에 따른 기초자료의 확보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고고학에서 가장 초보적 활동이면서 필수 과정인 현장조사에 해당한다. 조사된 유적은 자체만으로 고고학 목적인 과거인의 삶을 복원하는 직접적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다. 조사된 자료는 정리·분석을 토대로 사료화 되어야 하고, 나아가 복원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어야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적조사는 그 자체만으로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복잡한 연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제시대의 조사 유적에 대한 연구현황은 조사 기록에 만족하면서 개별 유적의 특성만이 부각시키는 수준이었을 뿐, 종합적 문화성격의 구명에까지는 나가지 못하였다. 능산리 고분군이러던가 송산리 고분군의 조사를 토대로 이들이 백제왕릉이란 사실과 함께 피장자로 백제왕을 상대 추정하는 정도 외에 출토된 유물의 특성을 파악하는 수준이었다. 능산리 고분군의 개별 고분에 대한 세부적 구조형상의 기술이라던가 개별 출토 유물에 나타난 특성의 파악은 비교적 면밀하게 이루어져 있고, 특히 피장자의 경우 개별 고분마다 백제의 사비 도읍시가 사망한 왕들을 비정하는 치밀함도 보인다. 다만 채취 시기에 각 왕들의 업적 다과에 기초하면서 이를 고분의 규모에 대비하는 미숙함도 엿보인다. 또한 송산리 고분의 경우 5기를 조사하고, 이중에 4기만 남기면서 백제의 웅진도읍기 사망한 4명의 왕을 의제적으로 대비하는 면도 보이는데, 이후 6호 전축분과 같은 새로운 자료가 추가될 때마다 혼선을 빚기도 한다. 사지 조사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가람양식이라던가 불상 및 건축 부재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군수리 사지와 동남리 사지의 조사를 토대로 백제 가람 배치양식이 일탑일금양식이면서, 이들 사지가 석탑이 아닌 목탑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 점을 근거, 백제도 초기에는 목탑이었다가 정림사지 석탑으로의 변화가 있었음을 일찍부터 고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 군수리 사지 출토의 석제불상을 근거로 백

제불상의 조형적 특성을 논급하는가 하면, 사지 출토 건축 부재를 통한 백제미술문화의 단면을 제시하기도 한다.

다만 일제시기 유적조사나 연구가 진정한 백제사나 백제문화의 탐구보다는 오히려 일본 고대문화연구의 기초자료 파악, 혹은 식민사학의 기초자료 확보라는 왜곡된 목적이 깊게 작용하고 있었음을 고려하면, 그 한계 또한 자명한 것으로 보는데에 문제가 없다. 예컨대 사지조사가 일본 불교문화의 원류 탐구라는 목적에서, 그리고 정림사지의 석탑 해석, 부여지역의 유적조사를 근거하여 백제 멸망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는데 많은 관심을 보이는 점에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긍정적 측면도 없지 않다. 일제시기 다량의 유적이 조사됨으로써 백제시대 후기의 문화상에 대한 기본적 이해수단이 마련되었다던가, 輕部慈恩처럼 백제고분군을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나뉘는 형식분류 및 편년관을 마련하여 이후 백제 황혈식 석실분 이해의 토대를 마련한 부분도 있다.

그런데 해방 후에는 일정 기간 유적의 연구분야에 이렇다 할 성과를 나타내지 못한다. 대체로 사학계가 식민사학을 청산하면서 새로운 도약발판을 마련하고 있을 때, 충남지역에서 유적연구는 이렇다 할 결과를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자료 축적의 부진과 학문 정보의 결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연구 경향도 대체로 유물·유적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문 감이 없지 않다. 그러다가 무령왕릉 발

건 이후 개별 자료의 집적에 따라 유적연구는 본 궤도에 오르게 되는데, 개별 자료에 대한 분석은 물론 종합화, 나아가 백제문화의 본질의 이해까지 시도하게 된다. 기왕의 충남지역 백제유적에 대한 연구현황은 내용에 따라 고분, 사지 등의 불교유적, 그리고 성곽 등으로 크게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가장 두드러진 연구분야로 고분을 들 수 있겠다. 백제고분의 연구는 일찍이 부여 능산리, 공주 송산리 고분군의 조사를 바탕으로 백제왕릉의 현황에 대한 이해와 남천후 묘제가 횡혈식 석실분이라는 점이 각각되면서 한성시대와는 차이 있는 묘제 사용을 알게 되었다. 즉 부여 능산리 고분군이나 공주 송산리 고분군은 각지에 도읍하던 시기에 사망한 왕들의 무덤들로 보면서, 백제묘제는 한성시기는 적석총이 주 묘제였었는데 남천후에는 횡혈식 석실분으로의 전환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특히 횡혈식 석실분은 왕실을 비롯한 상류 지배층의 묘제로 인정되게 되었다. 이후 횡혈식 석실분은 다양한 구조 형식이 확인되어 이를 기초로 형식 분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여기에 송산리 6호분과 같은 중국 남조계통의 전축분의 발견을 토대로, 백제문화와 중국남조문화와의 밀접성을 물적 자료로 입증되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이러한 고분의 이해 방식은 최근에 이르러 자료의 폭발적 증가에 힘입어 묘·장제와 관련된 제반 속성을 토대로 분석, 검토되어 형식분류와 편년은 물론, 형식간 변천문제, 지방으로의 파급문제까지 논급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백제묘제의 다양성과 묘제 전개에 특성에 대한 주목이다. 기왕에 백제묘제는 대체로 적석총이나 횡혈식 석실분의 범주에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백제의 도읍지역인 공주와 부여지역, 그리고 주변 지역에서 발견되는 수혈식 석실분과 토광묘 등의 자료가 증가하고, 이들에 대한 묘제 및 의미가 추구되면서 백제고분 문화의 다양성과 함께 지방토착묘제의 현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토광묘는 충남지역 전역에서 골고루 산포된 형상이고, 수혈식 석실분은 대체로 논산과 부여 동남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들은 백제남천 이전의 토착묘제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현황은 백제의 남천이전 충남지역 역사상 구명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역사의 계기성을 살필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고분 연구는 자료의 축적도 많고 연구 결과도 비교적 풍성한 편이다. 특히 고분 연구를 토대로 고분 자체만이 아니라 백제의 정치·사회 측면까지 유추·고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겠다. 다만 고분 연구에서 공주 송산리 적석유구와 같은 특수 자료의 해석 문제라던가, 횡혈식 석실분의 시원문제, 그리고 고분 유형에 따른 계층성 문제 등 미해결 부분도 적지 않다.

불교 유적은 주로 일제시대에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불교유적에 대한 대체적 이해 기준도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백제시대 寺址로써 최초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부여 軍守里寺址다. 조사는 1935년에 日人 이시다(石田茂作)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발굴결과 中門, 木塔, 金堂, 講堂 등이 남북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1탑 1금당식의 가람 배치를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백제시대의 寺址중에서 최초로 확인된 가람배치인데, 이후에 계속된 발굴조사를 통해서도 이 원칙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백제시대 사찰은 모두가 남북 자오선상에 塔과 金堂을 하나씩 배치하는 一塔一金堂式의 구조를 갖고 있음이 확실해 졌다. 다만, 부소산성 안에 있는 廢寺址의 경우 강당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산성 안이라는 위치와 강당이 없는 구조로 보아 이 寺址는 일반 다른 寺址와는 달리 백제왕실 전용의 願刹이 아닌가 판단된다. 또한, 1993년에 능산리 고분군 옆에서 발견된 寺址 역시 출토된 금동백제대향로의 존재와 사리감을 통해서 볼 때 일반 사찰과는 달리 聖王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陵寺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백제에는 전물 장병의 명복을 비는 烏龕寺와 같은 것이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이는 어느정도 뒷받침 된다.

그러나, 부여지역과는 달리 공주지역에서는 별다른 조사 예가 없다. 「삼국유사」에 성왕 4년(527) 大通寺의 창건 기록이 있으나 공주 시내 한복판에 있어 幢竿支柱와 石槽만으로 이곳이 寺址임을 추정할 뿐이다. 「삼국유사」에 보이는 水源寺址는 사지로 추정된 지역의 실제 조사결과 통일신라시대 이후의 유물만 확인되고, 백제시대 寺址로 알려졌던 남월사지와 주미사지도 통일신라시대 이후의 유물만 확인된다. 따라서 웅진시대 백제 가람의 구조나 특징은 전혀 알 수 없는데 이로 보면 백제

에서 불교문화가 꽃핀 것은 역시 웅진시대가 아니라 사비시대라는 판단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외에 예산 사면석불의 발견을 토대로 서해안 지역 불교 유적과의 연계 고찰이 가능하게 되었고, 부여 정림사지의 발굴조사로 가람에 대한 기왕의 인식을 재확인하면서, 출토유물을 토대로 6세기대 창건 가능성이 제시되어, 석탑의 시원 문제의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성주사지 조사결과에 의한 烏龕寺址의 입증이나, 능산리 사지 출토의 금동향로를 통한 백제공예 수준의 확인 등은 이 지역 불교유적 연구를 토대로 얻은 귀중한 수확으로 볼 수 있다.

성곽은 크게 도성과 산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고분과 마찬가지로 백제 사회를 연구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자료인 것은 틀림없으나 고분연구에 비해 아직 초보적인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도성 문제는 위치에는 별다른 이론이 없지만 도성내 있었을 것으로 보는 왕궁의 위치는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웅진시대 도성이 공주지역은 틀림없으나 왕궁이 어디냐는 것은 현재의 공산성 안이라는 견해와 밖에 있다는 견해로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왕궁이 공산성 안에 있었다는 주장은 성내의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백제시대 건물지와 그 앞쪽에서 확인된 蓮池, 저장시설, 그리고 왕궁지의 동쪽에 자리하고 있는 臨流閣址 등을 근거로 한 것이며, 「三國史記」의 기록에도 왕궁이 평지가 아닌 高地에 있었음을 시사해 주는 기록이 있다. 이에 비해 공산성 밖에 있었다는 주장은 성 안에서 발굴된 건물지의 규모, 그

리고 부여의 예를 근거로 삼는다. 이러한 사정은 사비도성의 왕궁 위치에 대해서도 동일한 양상인데, 부소산 남쪽을 조사하여 蓮池와 建物址, 그리고 교차하는 도로 등을 확인한 이후, 사비도성의 왕궁은 부소산 남쪽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 그러나, 이 사비도성의 왕궁 역시 뚜렷한 흔적은 찾지 못하면서 최근에는 부소산성의 발굴이 지속되면서 오히려 성안에서 왕궁을 찾으려는 노력이 더해지고 있다.

산성 연구는 겨우 산성의 위치만 확인하는 정도로 역사 지리적인 측면이나 기록에 보이는 산성 위치의 고증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조사된 부소산성의 성벽과 천안 백석동 산성의 존재는 백제산성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특히, 부소산성처럼 포곡식 산성과 테회식 산성이 합쳐진 복합식 산성의 경우, 규모가 작은 테회식이 먼저 축조되고, 규모가 큰 포곡식이 나중에 축성되었으리라는 추정, 발굴결과 정반대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 점은 앞으로 백제산성 연구에 중요한 轉機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소산성의 성벽조사를 통해 확인된 永定柱를 사용한 판축기법은 앞으로 백제산성의 축성 기법을 살펴보는 데, 반드시 참고해야 될 요소가 되었다. 천안 백석동 산성 역시 이러한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석성은 아직 구체적인 발굴 자료가 없어서 축성 기법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다행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부여 나성의 성벽과 성흥산성이 조사되어 그 일단을 확인해 볼 수 있

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성들의 크기와 모양을 어느 정도 통일되게 맞추어서 외면을 쌓아 올리고 있다. 또한, 성흥산성의 성벽 기초부에는 板石을 깔아 놓아 성벽의 기초부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였다.

이외에 목간의 출토로 백제 행정 편제의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부여 궁남지 조사결과나 부여지역에서 진행된 건물지 조사, 그리고 공주의 정지산 유적 등은 백제시대 사회, 정치, 문화의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 와오지의 조사도 관련 생활문화분야의 이해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IV. 問題와 課題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文化財가 埋藏된 형태로 존재하는 현실에 비추어 올바른 역사상의 확립을 위한 유적의 조사·연구활동은 필연적 과정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고고학은 초보적 활동으로 발굴이란 고통스런 과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기에 학문활동의 수행 자체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충남지역의 백제유적 조사활동은 이 지역에 도움이 자리하였었다는 환경으로 비교적 폭넓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유적은 당대 사회가 남겨 놓은 物的資料이며, 이들의 진정한 가치는 체계적 발굴조사를 기초로, 그에 대한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진정한 價値가 부여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백제유적은 敗亡國이란 역사적 환경으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埋藏遺蹟으로 존재하면서 그 잔존 현황도 매우 열악한 감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해방 전부터 꾸준히 진행된 충남지역의 백제유적 조사·연구 결과 나름의 성과도 적지 않고 여겨진다. 이는 이 지역이 백제의 도읍지였던 관계로 유적의 조사수가 상대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조사 내용도 비교적 풍부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인 백제 후기의 문화상은 대체로 충남지역 유적을 토대로 이해된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다.

그런데 충남지역의 백제유적에 대한 조사·연구의 근본 목적은 집적된 자료를 토대로 올바른 백제사·백제문화의 정립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백제유적은 매장 유적으로 존재함이 보통이고, 이의 조사는 어차피 발굴이란 특수활동을 거칠 수 밖에 없다. 역설적이겠지만 올바른 백제사의 인식, 나아가 전통 자산의 보존이란 측면에서 이들 유적은 끊임없는 조사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문제는 발굴 자체가 필연적으로 유적의 파괴를 야기하기 때문에 유적조사를 함부로 실행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개발 우선이란 미명하에 무차별하게 파괴되던 이들 유적은 국가의 선진화와 그에 따른 국민의 문화의식 증진에 힘입어 문화재 보존의 가치가 재발견되면서 이제 국토 개발에 앞서 문화재 조사가 정착 단계에 들어가는 등의 환경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충남지역의 유적조사는 문화권 개발의

기초자료 확보라는 측면에서 상당수가 조사되었던 관계로 백제문화의 구명이란 막연하고 포괄적인 목적을 명분과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진행된 감이 없지 않다. 때문에 사업계획에 의한 계획발굴이 많으면서, 조사목적이 정화·복원과 유적 보존에 지나치게 치중한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어차피 발굴이 유적 파괴를 전제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역사와 관련된 특정의 주제나 문제의식 없이 진행된 발굴에서 그에 상응하는 학문적 정보가 완벽하게 획득되었는가에 의문이 없지 않다. 또한 최근에 구제조사가 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데, 구제조사는 속성상 유적 파괴가 진행된 후에 조사가 이루어진다던가, 유적 보존에 상당한 문제를 안고서 조사가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또한 문제가 없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과 감지기 정도를 마련하긴 어렵겠지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충남지역의 백제유적을 지상·지하 유적을 막론하고 총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된 후에 문화권개발사업과 관련된 것은 사전에 정보획득의 가능성을 면밀하게 파악한 후에 진행하고, 구제조사는 사전 조율 속에서 이의 파괴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백제의 도읍지역인 충남지역에서 백제유적에 대한 종합적 현황마저 파악되지 않았음은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으면서 이에 대한 대처가 다각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기왕의 유적조사 연구현황을 종합하면, 특정 내용과 지역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자칫 백제사, 백제문화의 이해를 왜곡시킬 소지가 충분한 문제로 판단된다. 기왕에 조사된 유적은 고분, 사지, 산성, 요지 및 건물지 등 내용면에서 비교적 다양한 듯 하지만, 비율로 보면 고분자료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고분 자체의 학문적 유용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이는 사후 세계를 대비한 영조물로 현실 생활을 적나라하게 조감하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때문에 고분 자료의 유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교자료의 집적이 필요한데 아직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워 고분 이외의 자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는 조사대상 유적이 대체로 기념비적 고급 유적에만 집중되어 있는 데서도 나타난다. 아마도 문화권개발사업속에 정비·전시 대상의 유적발굴이란 환경에 익숙한 나머지 왕릉급 무덤, 혹은 금동향로와 같은 고급 유물의 출토 유적에 집착하는 감이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유적의 잔존 비율과 고고학적 방법론도 문제가 없지 않지만, 조사대상의 선정이 지나치게 대외 전시적 효과만 고려한다면 그러한 고급 문화를 창출한 기층 문화의 물이해는 물론 망각될 수 밖에 없어 문화의 균형적 이해를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또한 편중성은 조사지역에서도 나타난다. 기왕의 유적조사가 대체로 옛 도읍지였던 공주와 부여 지역 지나치게 국한하여 진행되었음은 주지된 사실이다. 사실 그동안 백제유적 조사가 공주와 부여라는 특정 지역에 편중된 채 진행된 결과, 백제 유적은 이들 지역에만 존재하고, 백제문화의 향취

는 이들 두지역의 전유물이란 인식이 보편적이었다. 이는 도읍지만을 지나치게 의식한다던가, 문화권역의 설정이 도읍지를 중심으로 확정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는데 그로 말미암은 백제문화의 파행적 이해가 많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물론 최근 각 연구기관의 조사활동과, 구제조사의 빈발로 이 문제는 다소 해소되는 경향이 없지 않지만, 아직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지되듯이 충남지역은 전체가 백제의 고지였고, 각 지역에는 나름의 독특한 유적이 남아 있다. 이들은 크게 보면 백제문화의 저변을 이루는 것들이고, 작게는 지역성이 그대로 함축된 것들이다. 예컨대 서산·태안의 마애불은 백제 불교문화의 정수이면서 서산·태안지역이 백제시대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마애불만 알려져 있을 뿐, 주변의 관련 유적의 조사연구에 소홀한 까닭에 아직 체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변에는 적지 않은 백제산성 등의 유적이 있어 이들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그 의미가 도읍지역 유적보다 크게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유적조사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로, 조사 유적의 해석 혹은 유적을 토대로 역사상을 복원함에 있어 보다 정밀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 주지되듯이 충남지역의 백제유적은 대체로 남천후인 백제 후기의 유적이 대부분이란 것은 누차 언급된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지역은 비단 백제만이 아니라 이후 통일신라에서 고려·조선시대까지 누대의 역사 경험이 반복된 지역이다.



따라서 각시대의 유적은 중첩된 형태로 있으면서 오히려 백제시대의 유적보다 후대의 유적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충남지역의 유적은 피상적 관찰만으로 일방적으로 백제시대로 편년한 후 의미를 추구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이는 자칫 역사상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는 것임을 유의하여, 유적을 역사자료로 활용하기에 앞서 유적 성격이나 편년적 위치에 대한 정밀한 연구를 담보하지 않는 한 성급한 결론은 가능한 삼가는 태도가 요구된다. 특히 산성의 경우 정도가 비교적 심한데 지금까지 백제산성으로 알려진 자료가 발굴조사 결과 대부분 통일신라 혹은 그 이후의 것으로 판명된 것이 많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V. 결 言

충남지역 백제 고고학은 이미 일제시대때부터 비롯되었고, 당시 충남지역의 유명 유적의 상당수가 발굴·조사됨으로써 지상에 노출되었다. 그러나 일제기 충남지역 유적조사는 조사된 양만큼 역사적 의미가 추구되지 못하였다. 이는 당시의 학문적 환경과 더불어 비교 자료의 부족에 원인을 들 수 있는데, 그럼에도 충남지역 백제문화 인식의 뿌리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백제유적 연구과정의 한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해방후 사회·정치적 혼란속에 충남지역 고고학 연구도 일시 침체기를 겪게 되지만 유적을 우리 손으로 발굴하고, 연구한다는 소중한 경험속에 점차 이후의 발전을 위한 토양이 배양되던 시

기이면서 무령왕릉 발견 이후 분위기를 일거에 일신시킬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80년대 이후 유적조사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학술목적의 계획발굴, 구제조사 등의 다양한 수단에 의해 가속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충남지역 백제문화의 진면목을 그대로 드러낼 수 동기가 부여되고, 그에 따른 연구활동도 매우 왕성하게 전개되어 백제문화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의 검토 결과가 산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적연구는 발굴이란 고고학적 방법만을 통해서 가능한 현실에서, 발굴이 유적 파괴를 전제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 조사·연구자세가 요구된다. 나아가 올바른 백제문화의 정립, 충남지역 고대문화의 정립을 위해서는 기왕의 백제유적 조사 및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사항들을 문제의식으로 전환하여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열린충남**